

분단의 골짜기 건너 통일의 바다로

한반도 통일론 관련도서 어떤 것들 나와있나

김기태

자유기고가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는 급박하다 못해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는 난기류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측 실무협상대표의 극언과 핵사찰거부과동으로 인해 전쟁위기가 증폭되는가 싶더니, 카터 전미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거론되어 7월 25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이 만나기로 일정까지 합의됨에 따라 역사적 전환기를 앞둔 여러가지 낙관적 예측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난 7월 8일 새벽에 김일성주석이 돌연 사망함에 따라 모든 가능성은 일시에 미로 속으로 빠져 들고 말았다. 그리고 전세계의 이목은 북한의 새로운 권력 체제가 어떻게 재편될지에 쏠려 있다.

현재로서는 김정일에 의한 권력세습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과연 그가 김일성만큼 완전히 권력을 골고루 장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원로들을 포함하는 집단지도 체제가 될지, 최악의 경우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내전상태가 될지 유동적인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협상의 결과는 미지수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분단 이후 최초로 성사된 남북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이번 기회를 통일을 향한 절호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과 함께 최소한 이산가족의 재회 정도는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실무자들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이 안겨준 충격은 너무 큰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한반도의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오리무중의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이제 새로 탄생할 북한의 최고실권자에 따라 모든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짐으로써 한반도통일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 종식이후 통일논의 활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동·서 양대진영으로 나뉘는 냉전시대의 시작과 함께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맞은 한반도는 극동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세의 간섭에 의해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이질적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상황은 고착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아울러 6.25로 인해 남·북의 적대의 식이 극도로 격화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은 절망에 휩싸이고 말았다.

하지만 분단 이후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국내적으로는 필연적인 민족적 권리와 의무로서,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에 의한 힘의 경쟁 때문에 갈라진 한반도를 재결합시켜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실현하는 교두보로 삼기 위한 방안으로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85년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동·서진영의 냉전상태가 급속히 해소되고, 그 영향으로 1989년 이후 동유럽국가들의 탈공산주의 경향이 두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1990년 10월에는 기적처럼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전망에도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동안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다룬 연구성과들은 대부분 이질적으로 발전해 온 남과 북의 정치체제와 이념을 다룬 것들과 그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통일의 유형을 대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는 흥미 위주의 통일시나리오도 국내외에서 여러편 출간되었다.

점진적으로 통일방안 제시한 연구 많아

우선 국내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논의에 관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한반도 통일의 현실과 전망'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양호민 외, 나남, 1992)를 들 수 있다. 국내학자 10인이 공동저술한 이 책은 통일에 관한 논의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 내용과 함께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등을 다루면서 지금까지 있어 온 분단국의 통일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남북통일의 가상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제3부에서는 바람직한 통일의 유형과 함께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분단국 통일의 유형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통일로, 베트남



예비모임을 갖고 있는 남북의 대표.

은 월맹이 무력에 의해 월남을 공산화한 통일로, 예멘의 경우는 비례대표제의 형식을 띤 남북합의의 통일로,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협상을 통한 중립화의 통일로 각각 분석하고 있다.

이 중에서 베트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특히 독일의 통일유형이 주민들의 자유선택에 따른 흡수통합이며 민주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한 민족통합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통일의 가상시나리오로 한국주도하의 통일, 북한주도하의 통일, 남북합의에 의한 통일, 남북장기공존시대의 출현 등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3부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통일의 유형과 통일준비에 따른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능성에 있어서나 합목적성에 있어서나 장기공존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이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이라고 판정하면서, 통일은 민족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하므로 되도록 희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세계사적 흐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논의의 성과로 최근에 선보인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조재길, 삼민사, 1994)에서는 북한의 외교정책을 자주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남·북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즉 "흔히들 북한이 비이성적으로 합의를 뒤엎고 생떼를 쓴다고 말하지만 지금

까지 북한과 미국간의 회담에서 역지를 부린 쪽은 오히려 미국이었다.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양보를 한 쪽은 북한이었다"고 하면서 그 예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북한은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는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해 온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소련과 중국이 남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과의 수교마저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정부가 소위 한미공조체제를 이용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는 대미의존적인 자세를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7천만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무리하게 버티는 듯한 북한의 태도도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양비론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통일은 민족내부의 문제이므로 남과 북이 함께 민족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견지에서 분단극복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남북한 통일론」(유석렬, 법문사, 1994)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북한의 존재와 민족분단은 반만년의 민족사적 견지에서 볼 때 시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인위적 현상"으로 파악하면서 남북분단은 본래 하나의 상태로 다시 회복될 때 자연스러운 것이며 "지나치게 감상적인 낙관론에 빠져 너무 앞서가도 안되지만, 비관론에 집착하여 모처럼 맞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놓

쳐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동안 통일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남과 북의 정책에서 찾고 있는 바, "한국은 북한을, 북한은 한국을 6.25전쟁과 관련시켜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러한 관념 밑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피차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한 것에서부터 불신이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결국 1990년대 들어서 북한도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를 통해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논의의 귀결점은 평화통일

또한 「통일, 이렇게 합시다」(유성하, 대동출판사, 1992)에서는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들을 무력에 의한 통일,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 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를 들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정부, 두개의 제도"로 우선 통일을 이루자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이념과 체제의 일치를 의미하는 1정부 1체제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충돌을 낳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밖에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미국과 한반도 통일전망」(황인관, 한백사, 1992), 국내외 인사들의 통일에 대한 견해를 수록한 「조선통일론」(아시아태평양평화정책연구소 편, 이승렬 옮김, 세계, 1989), 민중의 의지가 결집된 민주정부의 수립만이 통일의 열쇠임을 주장하는 「민중과 통일의 길목에서」(이해찬, 함께사는세상, 1989) 등이 눈에 띄는 성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체제변화를 중심으로 소위 '내재적 접근 방법'을 통해 동반자적 입장에서 북한의 변화되는 모습과 주변정세에 대응책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의 현실과 변화」(두리, 1993)도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권력형성과정에서 조선인민군이 차지한 비중과 역할이 통일문제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 「평양에 봄은

오려나」(이도형, 다나, 1990)와 재야의 입장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를 점검하고 있는 「현대통일운동론 I」(친구, 1988)도 눈에 띄며,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학자들의 견해가 집결되어 있는 것으로 통일문제국제심포지움 발표집인 「조선통일론」(세계, 1989)이 주목할 만하다.

결국 반세기 동안 각기 다른 이질적 이념 속에서 별개의 정책노선을 추구해온 남과 북이 화합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이질성에 기초한 상호불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 신뢰감이 회복될 때 순조로운 대화의 창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통일을 이룩한 예전 분단국들의 통일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모형으로 부러워하고 있는 동·서독의 통일이 시사하는 바는 통일이 의외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 통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을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90년 5월, 남과 북이 평화통일에 합의하여, 흡수통일이 아닌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 가능함을 보여줬던 통일예멘 공화국의 경우 권력분배의 잡음이 내전으로 치달은 끝에 최근에 이르러 북예멘에 의해 다시 무력통일됨으로써 현실적 기초가 없는 통일의 허구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관계의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려워졌지만, 탈냉전의 조류가 국제적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권력자 또한 무모한 모험으로 고립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대화노력과 더불어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점진적인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실천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성균관 개구리 한술에 뛰어든다!”

자나 깨나 글을 읽는 사람을 밟지 않게 놀리는 말인 '성균관 개구리'

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글발을 일구고자 6년 전 한술은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출판인들과 소중한 인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잘 여문 옥수수처럼 수수하게 빛나는 책의 얼굴

갖 나온 책들을 만족스레 쓰다듬으며

연신 고마움을 전하는 그분들을 배웅할 때 우리들의 피로는

파도 같은 희열로 끊어오릅니다.

출판에 관계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출판전문 제작대행사 - '한술',

우리의 힘은 바로 글을 사랑하는

'성균관 개구리'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출판전문회사 『한술기획』은 전자조판에서 편집교정, 자비출판, 제작에 이르기까지 출판 전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은행으로서 출판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기성·신인작가들의 옥고(玉稿), 출판사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과 기존 출판사들께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